

2005년 『월간양계』 선정 10대뉴스

- 홍보팀 -



1 닭띠해 맞이 양계산물 홍보행사 활기

을유년(乙酉年) 닭띠해를 맞이하여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졌다. 본회에서는 농림부와 농협(기금수급안정위원회) 후원으로 1월 1일 서울 남산공원에서 닭의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이날 행사에서는 우리 닭에 대한 이미지 부각 및 양계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소비 촉진 내용으로 행사가 치러졌다. 이날 행사는 을유년 새해를 여는 풍물패 공연을 시작으로 관련인사들의 소망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닭날리기 행사, 계란 및 닭죽시식회와 2005개의 계란복 주머니 및 닭모형 기념품을 배포하면서 양계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였다. 닭의날 행사는 지난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어려움에 처했던 양계인들이 다수 참석하여 양계업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시민들과 언론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지난 9월 9일에는 제 3회 99데이 행사가 전국적으로 치러지면서 범국민 행사로 부각되었다. 구구데이는 예로부터 닭을 불러 모을 때 '구구' 하고 부르던 것에 착안하여 매년 9월 9일에 '모두 불러 모아 닭고기와 계란을 먹는 날'로 정해지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이 밖에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계란과 닭고기의 우수성이 방영되었는데 특히, 계란 콜레스테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해시키면서 양계산물 소비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2 AI(조류인플루엔자) 과잉보도 파문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의 세계적인 확산추세는 물론 인체감염에 대한 시나리오가 방송매체에 지속적으로 보도되면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지난 2004년 HPAI가 국내에 창궐할 당시인 2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작성된 시나리오 문건이 1년 반이 지난 9월에 모 국회의원의원을 통해 언론에 발표되면서 WHO 등의 수백만명의 사망설과 더불어 일파만파 파장이 확산되었다. 이 시나리오에 의하면 감염예상 환자는 1,000만명, 입원환자는 100만명, 사망자는 3만명이라는 재앙을 예고한 바 있다. 또한 WHO 사무총장이 국내에 방문하여 아무리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몇 백만명이 감염될 것이라는 발언 등이 나오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로인해 양계산물 시세가 하락하고 소비가 감소하는 등 양계업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다.

본회를 비롯한 양계관련 단체에서는 KBS 등 언론사를 방문하여 농가의 어려운 현실 및 방송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각 언론사에서는 조류독감을 (A)조류인플루엔자로 명칭을 변경하고 잘못 보도된 내용 등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대변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전국양계인들은 지난 11월 24일 여의도에서 양계인 1,5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대적인 항의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14일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예보발령을 내리고 1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해 국가방역에 만전을 기했다. 본회에서도 지난 10월 10일 긴급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관련단체들과 연대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AI특별 방역기간이 시작되는 10월 1일 본회 등 생산자들과 함께 신공항통게이트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양계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홍보하는 등 질병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3 닭 사육수수 사상 최대 기록

닭고기와 계란가격이 지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급등하면서 장기간 이어져왔다. 이에 따라 양계농가들이 생산에 중점을 두어 시설을 늘려온 결과 닭사육수수가 지난 1977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식통계가 시작된 이후 금년 6월 1억4천934만수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양계업 경기전망을 어둡게 하였다. 닭사육수수는 공식통계가 시작된 1977년 3천22만수(최근의 20% 수준)에 불과했으나 양계산업의 규모화로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1996년 6월 1억257만수로 1억수를 돌파하였고 이후 증감을 거듭하면서 1억수 안팎의 수준을 유지해왔다. 금년 6월 1억4천934만수는 지난 3월에 비해 무려 36.2%가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 2002년 6월 1억2천995만수가 가장 높았던 시세로 기록되고 있다. 지난 HPAI 발생 이후 3월까지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왔으나 그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양계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에 나섰는데, 종계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한 쿼터제 시행, 가격안정을 위한 병아리 연동제, 사육수수 안정화를 위한 75주령 이후 종계노태 등을 골자로 대책이 강구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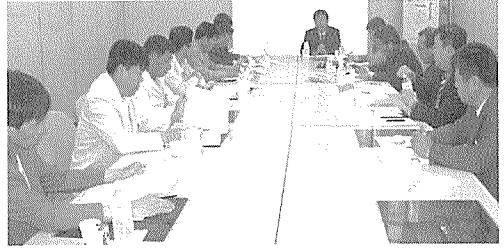


육계계열생산 농가 협의체 구성 등 권익보호 노력

계열업체에 대한 육계 계열농가의 사육수수료 인상요구가 구체화되고 업체와의 계약관계에 불만을 제기하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었고, 계약사육농가들은 농림부에 농가들의 어려움과 계열업체들의 횡포 등에 대해 전달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모색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계약사육농가들은 계열

사별로 육계계열농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러한 현상은 다수의 계열농가들에게 영향을 주어 협의체 구성이 급속히 확산되기도 하였다.

본회에서는 계열사와 농가간의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2002년도 육계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서기도 하였으나, 표준계약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미 계열사들의 계약방식과 계약형태가 천차만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



부 시세보너스 적용 이외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계열농가측에서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계열사들의 이익은 증가하였음에도 육계농가의 수익은 상대적으로 감소한 점을 들면서 육계사 육비 인상을 비롯 병아리품질 문제, 사료품질 문제, 계열주체에 대한 채권 확보, 표준계약서 작성 운영, 계약방법 개선, 난계대 질병 발생원인의 단계별 책임소재 규명, 상차비 및 깔짚비 현실화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계란 품질 문제 부각

지난 9월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각종 일간신문을 통해 계란에 대한 품질과 위생문제가 심각하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유통의 혼란과 난가 하락으로 채란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소시모는 금년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재래시장 등에서 수거한 계란 92개 품목, 2천 7백여개에 대해 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이중 67.4%인 62개품목은 품질 3등급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으며, 신선도에 있어서도 20%가 소비자 거부점인 60%미만이었다고 지적하였다.

본회는 소비자시민모임으로부터 각 언론사에 배포된 보도자료를 입수하는 즉시 각 언론사에 검사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소비에 악영향을 끼칠 것에 대비해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호소하는 한편, 소비자시민모임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품질을 평가해준 축산물등급판정소에 추석대목을 앞두고 양계농가 죽이기에 앞장선 저의를 밝히려는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히 항의를 하였다. 이번 사건은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강하게 제기하고 있어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렸으며, 발표에 앞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육계자조금 대의원 선거 전국 실시

양계업계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자조금 사업에 대한 대의원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육계자조활동자금설치를 위한 대의원 선거가 지난 10월 24일부터 28일 5일간에 걸쳐 74개 선거구에서 135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다.

이로 인해 육계의무자조금사업 추진을 위한 행보가 빨라지기 시작했다. 본회와 계육협회는 금년 초 육계공동자조활동자금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업추진에 나섰으나 자조금 거출문제 등 계열업체와 육계인들

의 이견으로 인해 난항을 겪어오기도 했다. 결국 지난 8월 23일 공동준비위원회를 통해 대의원 선거일정 등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지면서 육계자조활동자금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적으로 선출된 대의원은 앞으로 육계자조활동자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등 보다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하는 등 자조활동자금사업의 큰 골격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선 투표를 통해 거출금납부 및 실제 거출방식 등을 결정한 후 자조활동자금 사업계획 수립·제출 및 사업계획을 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최종 대의원의 승인을 얻어 거출금 조성 및 소비·홍보 등을 집행하게 된다. 그러나 산란계의 경우 사료에 대한 자조금 부과에 대해 일부 사료업체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난항을 겪었다.



7 파리 구제제 사료첨가 불가

사료내 첨가용 동물약품 감축방안의 일환으로 기존에 사용되던 53개 항생제 및 약품제제가 25종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양계분야에서는 지난 5월 1일부터 여름철 파리구제제인 사이로마진이 사료첨가제로 사용될 수 없게 되어 농가들 사이에 불만이 고조되었다. 사이로마진은 여름철부터 초가을까지 양계장의 골치거리인 파리발생 억제에 큰 기여를 해왔으나 성분이 살충제라는 이유로 사료첨가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양계농가들은 지역의 판매점과 동물약품업체에서 직접 사이로마진을 구매하여 무더운 날씨에 농장에서 직접 첨가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다.



삭제 논란에 대해서는 2~3차례의 형식적인 검토를 거쳐 내성의 심각성을 경고받고 있는 페니실린과 같은 성분은 그대로 잔존시키고 인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약제를 삭제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농림부에서는 항생제 사용절감을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8 종계장 D/B 구축사업 활기

금년 4월부터 농림부 기금수급안정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계 D/B구축사업의 지정관리 기관으로 대한양계협회가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종계 D/B구축사업은 종계의 입식변동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인 양계산업 발전을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 4월 농림부로부터 DB구축사업이 승인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 2004년 10~11월에는 이미 양계협회, 계육협회, 농협의 협조하에 전국 200여농가에 달하는 종계장에 대한 일제 현황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본회는 DB 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지난 7월부터 원종계농장으로부터 분양된 모든 육용종계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 수집하여 입력관리를 하며, 계군별로 입식에서 도태에 이르기까지 평균 4회 이상 종계장을 방문하여 사육현황 파악 및 변동자료를 입력하여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등록제와 연계해 무등록 종계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 차후 무등록 종계장에는 분양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제제조치도 따를 것으로 전해지면서 DB구축이 이루어져 관리될 경우 수급조절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종계 · 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실시

종계장 · 부화장 방역관리요령이 지난 5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금년 3월부터 시행되기로 했던 것이 업계의 반발로 2개월 연장되어 시행되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종계 · 부화업체와 백세미를 생산하는 계열사들간에 문제해결을 위한 서로의 입장차이를 보이면서 난항을 겪었다.

이번에 제정된 관리요령에는 그동안 질병의 온상으로 여겨져온 백세미(모계인 산란계)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최근 종계인들과 백세미 생산업체들은 백세미를 생산하는 산란계에 대해 종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결국 백신문제에 대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백세미 생산업체에서는 모든 산란계농장에서 백신을 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종계장들도 백신이 이루어지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종계에도 백신을 사용토록 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으며, 종계인들은 종계는 산란계와 달리 병아리를 생산하는 만큼 난계대로 인한 감염확율을 배제할 수 없어 신중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산란계에서는 생균백신을 산란전 2차례에 걸쳐 접종을 하고 있으나 종계에서는 평사사육이 대부분이다보니 개체관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정부에서는 별도의 백세미 관리요령을 준비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였다.



10 전 농가대상 양계업 등록 실시

정부에서는 축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친환경축산을 유도해 각종 지원 및 지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한다는 차원에서 2002년 12월 26일 축산법을 개정하고 종축업, 부화업, 계란집하업 및 일정규모(닭의 경우 300m²) 이상의 가축사육업을 영위하는 농장에 대해 등록제를 실시키로 결정하고 금년 12월 26일까지 농가를 대상으로 등록을 받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24일 현재 양계업의 등록현황이 9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막바지 등록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등록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 친환경 축산 직불제와 연계하여 미래 지향적인 정책으로, 이번 기회에 DB구축과 연계하여 양계업계가 한층 업그레이드를 이룰 수 있는 제도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양계**